

케이블 TV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가입하나

케이블 TV 운영 방법

프로그램 공급자 → 방송국 운영자 → 전
송망 사업자 3단계 거쳐 가정에서 수신

‘보고싶은 프로그램만 골라서 보는 시대’가 3월이면 열린다. 다다익선이란 말이 어울릴지, 아니면 금상첨화라는 말이 어울릴지, 원하는 프로그램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는 케이블 TV의 뉴미디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케이블 TV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소비자의 시선을 끌게 될지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 케이블 TV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30개의 채널을 통해 기호에 따라 버튼만 누르면 보고싶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는 정도외에는…….

이는 케이블 TV가 기존의 KBS나 MBC, SBS, EBS등 공중파 방송과는 내용과 운영면에서 다르고 또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유선방송과도

혼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방송 카운트 다운에 들어간 케이블 TV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그동안 일부 가정에서 시청하고 있던 유선방송은 공중파 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한 목적이 컸지만 종합유선방송은 이와는 다르다. 공중파 방송을 재송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여 방송한다는 차이가 있다. 즉 다양한 채널이 있는 백화점식 방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CATV라는 용어는 적합치가 않다. 원래 CATV는 ‘Community Antenna Television’의 약어로서 난시청 해소에 목적이 있는 공동 안테나 텔레비전을 의미한다. 그보다는 케이블 TV라는 용어가 적절하다.

케이블 TV가 각 가정에 전달되기까지는 프로그램 공급업자, 방송국 운영자, 전송망 사업자의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프로그램 공급업자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종합유선방송

국에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전문 채널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과 계약한 운용 시간에 공급하여 가입자가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프로그램 공급업자는 11개 분야의 20개 업체가 있다.

이들은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거나 외주 제작시켜 확보한 후 종합유선방송국에 공급한다.

종합유선방송국 운영자는 방송되는 전체 채널에 대한 편성권, 광고권 및 가입자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채널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내의 생활 정보, 부동산 정보, 문화 예술 행사 등을 자체 제작하여 방송할 수 있다.

전송망 사업자는 전송 선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종합유선방송국이 송출하는 방송을 가입자에게 연결시켜주는 사업자이다. 전송망 사업은 종합유선 방송 뿐만 아니라 국가 통신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이 팔고 있다.

케이블 TV는 매달 소정의 수신료를 지불해야 하는 유료 TV이다. 1만5천원의 수신료를 내면 29개의 기본 채널을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추가 요금을 내야 시청할 수 있는 유료 영화 채널도 있는데, 기본 수신료 1만5천원 외에 7천8백원을 따로 지불해야 한다.

가입 방법

컨버터 있어야 케이블 TV 수신 가능 보증금과 임대료 지불

케이블 TV를 보려면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팩시밀리를 이용해 가입할 수 있다. 케이블 TV의 가입 계약은 곧 기본 채널을 모두 받는 것이므로 특정 채널만 계약하여 볼 수는 없다. 예컨대 다른 채널을 볼 시간이 없어서 뉴스 채널만 가입하겠다는 것은 안된다.

한편 케이블 TV는 공중파 방송과는 달리 TV에 수신 장치인 컨버터를 설치해야 시청이 가능하다. 컨버터 등 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컨버터의 가격은 구입할 경우 15만원 정도이며 종합유선방송국에 보증금을 내고 임대하여 이용할 수도 있는데 임대료는 매월 2천원 정도이

다. 수신을 중단하거나 이사를 가게 될 때는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케이블 TV는 이처럼 기존의 공중파 TV와는 다른 양상을 띤다. 채널이 많기 때문에 채널의 전문화, 세분화가 가능하며 공중파 TV보다 여러 계층의 소비자의 기호와 취향에 맞게 편성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욕구와 부합되는 양질의 프로그램이 공급된다면 '금상첨화'라고나 할까, 아무튼 케이블 TV의 중요한 매력은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있다.

전문가 의견 1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 정보와 광고의 한계, 내용 심의 미비 등이 우려돼

■ 글/김광호(방송개발원 방송프로그램 연구실)

케이블 TV는 몇가지 점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지적되고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먼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케이블 TV의 채널을 다 받아 봐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20개가 넘는 채널을 모두 받아 봐야 하기 때문에 채널을 결정하는 수신자의 권리가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초기에 방송 사업자들이 너무 많은 적자를 내서는 문제가 되겠지만 수용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채널을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그에 따라 수신료를 지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 할 때 이는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 할 수 있다.

둘째, 케이블 TV가 전문화된 채널로서 기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케이블 TV의 프로그램 편성 기준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못하다. 즉 채널 분류가 시청자 타겟별, 내용별, 포맷별로

혼재되어 있어 비록 채널의 전문화의 형식을 취했으나 실질적인 내부적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프로그램이 여러 채널에서 동시에 방영될 수 있다. 예컨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은 영화 채널이나 어린이 채널, 음악 채널 또는 교육 채널에서 다같이 방영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분류가 명확하지 않다. 즉 채널간의 유사성이 우려된다. 또한 가정오락채널에서는 가정 드라마, 가정교양, 가정오락물들이 전부 방영되어 전문 편성이 아니라 종합 편성이 될 우려가 많다.

셋째, 현재 각 프로그램 공급에는 약 2개월 분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전문 채널에서 재방송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지만 잘못하면 너무 빈번한 재방송 프로그램을 보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

을수 없다.

넷째, 정보와 광고의 한계가 불명확해질 가능성도 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업체를 탐방하거나, 신제품 소개, 새로운 유행을 탐방하거나, 신제품 소개, 새로운 유행을 소개하면서 정보와 광고의 한계가 뒤섞일 우려도 적지 않다. 또한 협찬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광고 역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들, 예컨대 음란 퇴폐물 및 폭력, 사회 윤리적 요소, 이용자의 정보 접근, 이용의 편의성, 인권, 명예, 사생활, 초상권 침해 등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채널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 기존의 방식으로 모든 채널을 소비자보호운동의 차원에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감시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그래야만 향후 전개될 '뉴미디어 시대의 총아'인 케이블 TV가 바람직하게 발전될 것이다.

어떤 프로그램을 볼 수 있나

30 개 채널의 케이블 TV는 뉴스, 영화, 음악, 교육, 스포츠, 오락, 종교 등의 전문 채널과 지역 채널, 그리고 기존 공중파 방송의 재송신 채널을 합한 숫자다(30개 채널 가운데 홈쇼핑, 바둑, 만화, 문화 예술 관련 채널은 10월부터 방송할 예정이다).

케이블 TV가 방송되면 농구팬은

스포츠 채널을 볼 것이고 중·노년층의 시청자는 오락 채널에서 흘러간 드라마를 보며 추억에 젖어들기도 할 것이다. 10대들은 음악 채널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유명 교사가 나와서 강의하는 교육 채널의 과외 프로그램을 시청할 것이다.

현재보다 채널 수나 방송 시간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시청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무궁무진하다. 방송시간은 대부분의 채널이 오전 10시에 시작, 자정까지 방송을 할 계획이다.

그러면 케이블 TV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나, 분야별로 내용을 살펴보자.

▼케이블 TV를 보려면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팩시밀리를 이용해 가입할 수 있다.



보 도

연합TV뉴스(YTN)

CNN, NHK등과 공급 계약 맺어

국내외 각종 뉴스 및 생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목표로, 일정한 길이의 WEEL뉴스(뉴스가 생길 때마다 이를 바로 보충하여 반복 방송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의학, 건강, 날씨 등 기획물을 중간에 편성해 방송한다.

주요 사안, 사건이 발생할 경우는 가급적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현장 중계할 방침이다. 국내 방송 프로그램은 자체 제작하거나 기존 연합통신의 취재망을 활용하여 제작하게 된다. 해외 프로그램의 경우는 로이터TV, CNN, NHK, BBC등과 공급 계약을 맺고 동시 통역과 문자 통역을 최대한 활용하여 선보일 예정이다.

하루 24시간 전일 방송한다. 채널은 24번.

매일경제TV(MBN)

주식 시황등 경제 뉴스 중심

경제 뉴스를 주축으로 경제 관련 이벤트 중계와 주식 시황 해설 및 부동산 정보, 생활 경제 정보 등을 집중 제공한다. 해외 경제 관련 우수 프로그램을 확보하기 위해 KBS 영상사업단과 제휴에 이어 일본의 NSN, 미국의 CNBC 등과도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방송 시간은 본방 4시간에 재방송 4시간으로 하루 8시간 방송한다. 채널은 20번.

영 화

삼성물산(CATCH ONE)

최신 개봉작 위주로 방송

최신 개봉 영화를 공급하게 될 삼성 영화 채널은 유일하게 유료 채널로 운영된다. 채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프로그램의 90%를 영화로 편성하고 나머지 10%는 텔레비전용 영화, 드라마 및 연예 대담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방송 시간은 평일일 경우에는 오후 1시부터 자정까지이며 주말인 토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리고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방송한다.

또한 시간대별로 성인층, 주부, 가족, 어린이·청소년층 등을 세분하여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방송할 예정이다. 채널은 31번.

대우시네마 네트워크(DCN)

93년 이후 개봉작 50% 확보

영화 채널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장르별로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청자의 편의를 위해 영화 퀴즈, 주말 극장가 산책과 같은 영화, 극장 관련 정보를 주말에 정기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국내 영화는 93년 이후부터 제작된 영화의 50%를 구입하여 방송할 계획이다.

오후 2시부터 새벽 1시까지 방송하는데 영화의 시작 시간을 10시, 12시, 4시, 8시 등 모두 정시에 편성하고 있다. 채널은 22번.

케이블 TV 상식 ①

케이블 TV 보려면 얼마나 드나

단독주택의 경우 8만7천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0만7천원

월 1만5천원의 수신료로 기본 채널을 볼 수 있고 유료 영화 채널을 보려면 7천8백원을 더 내야한다. 가입자가 세대당 추가로 기본 채널을 신청할 경우 10대까지는 50%를 할인해 대당 7천5백원으로 하고, 10대 이상 신청할 때는 70%를 할인하여 대당 4천5백원을 받는다.

컨버터는 방송국으로부터 임대할 경우 사용료 및 유지보수비로 월2천원을 내야 하며 컨버터의 반환, 훼손, 분실에 대한 보증금으로 3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또 케이블 TV 시청에 필요한 시설 설치 비용은 단독주택이 가입자당 4만원이며 설치가 훨씬 복잡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6만원을 별도로 내야 한다.

따라서 단독주택일 경우 케이블 TV를 보려면 기본 수신료 1만5천원, 컨버터 임대료 2천원, 컨버터 보증금 3만원, 시설설치비 4만원 등 8만7천원이 든다. 아파트의 경우는 시설설치비가 단독주택보다 2만원 더 비싸므로 10만7천원을 내야 한다.



▶케이블 TV는 매달 소정의 수신료를 지불해야 하는 유료 TV이다. 1만5천원의 수신료를 내면 기본 채널을 볼 수 있다. 단 유료 영화 채널의 경우, 수신료 1만5천원 외에 7천9백원을 따로 지불해야 한다.

스포츠

한국스포츠TV(KSTV)

각종 스포츠 경기 중계

국내외 각종 경기 및 해설과 전망을 포함한 각종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전해주는 스포츠뉴스, 스포츠 강습 등의 스포츠 교양 프로그램 그리고 건강 정보와 레저 정보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방송 시간은 평일이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이며, 주말은 평일보다 4시간이 늘어난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이다. 채널은 30번.

교양

Q채널(Q CHANNEL)

다큐멘터리 중심으로 방송

다큐멘터리를 주축으로 생활 교양 및 가족 오락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다큐멘터리는 자연다큐멘터리, 첨단 과학·테크놀로지, 역사, 문화 인류 기행, 탐험 등이 방송된다.

기존 공중파 방송의 다큐멘터리와 차별화를 위해 드라마, 시추에이션, 퀴즈 형식으로 다큐멘터리 형식을 다양화시켰다.

외국 프로그램은 세계 유일의 다큐멘터리 채널인 미국의 디스커버

리 채널과 프로그램 독점 제휴를 통해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정오부터 자정까지 방송한다. 채널은 25번.

센추리TV(CTN)

장르별 외국 프로그램 방송

환경 보호 차원에서 위어가는 자연계 다큐멘터리와 첨단 기술과 과학을 다루는 과학·기술·문화 및 예술, 어린이 만화 그리고 각종 생활 정보로 구성된다. 외국 프로그램은 장르별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있는 필름 라이브러리나 프로그램 전문 공급선을 통해 공급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오후 6시부터 밤 12시 30분까지 방송하며 일요일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 30분까지 방송한다. 채널은 29번.

교 육

두산수퍼 네트워크(DSN)

학습과 교육 다큐멘터리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은 크게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성인을 주시청자로 삼는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이는 다시 각각 학습과 교육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세분되어 있다. 내용은 중고교 학습, 외국어, 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해 교양, 교육 오락 정보를 방송한다.

평일에는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이며 토요일은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이다.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이다. 채널은 23번.

마이TV(MY TV)

학교 교육 과정 중심

학교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편성한다. 따라서 학교 교과학습프로그램과 비교과 프로그램인 일반 상식 및 교양, 진로 지도, 정보 제공 프로그램, 컴퓨터 강좌 등을 편성하여 방송한다.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은 오전 5시부터 8시 30분까지, 오후 4시 30분부터 자정까지 방송하며 일요일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방송한다. 채널은 44번.

▼케이블 TV의 방송시간은 대부분 오전 10시에 시작해 자정까지 방송될 예정이다.



다솜방송(TCN)

학제 반영한 학습 프로그램 방송

현행 학제를 반영한 교과 학습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중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4개의 교과 영역으로 나누고 고등학교는 여기에 사회를 추가한 5개 교과 영역으로 대별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교양 프로그램과 교육 정보 프로그램도 방송한다.

방송 시간은 평일이 오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이고 토요일은 오전 동일, 오후 3시 30분부터 11시까지이다. 일요일은 오전 동일,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이다. 채널은 26번.

교통·관광

교통관광TV(TTN)

전국의 교통 사고 보도

교통안전진흥공단이 교통·관광 전문 채널로서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전일의 전국 교통 사고를 보도하는 교통 뉴스 및 교통 정보, 건강, 관광, 레저 등의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오후 7시부터 밤 11시까지 방송한다. 채널은 28번.

어 린 이

어린이 채널(DBC)

예절, 취미, 놀이 프로그램 방송

어린이 건강, 현장 탐험, 예절, 취미 등 생활 교양 프로그램과 만화, 영화, 공개 방송으로 놀이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오전 8시부터 2시간은 유아, 유치원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공급되며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는 어머니

를 대상으로,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는 국민학생학습 위주의 탐구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채널은 17번.

오 락

현대방송(HBS)

폭력물과 섹스물 배제

폭력물과 섹스물을 배제한다는 원칙하에 가정드라마, 교양물, 가족 오락물을 편성했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시간대 별로 시청 대상을 차별화하여 방송되는데 평일의 경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여성, 오후 5시부터 6시30분까지는 어린이,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는 부부가 보는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채널은 19번.

제일방송(FBS)

전문 드라마 선보여

제일기획이 드라마를 중심으로 토크쇼 및 교양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드라마는 신선하고 다양한 소재와 형식을 도입하여 시추에이션 코미디, 성인 만화 드라마, 리메이크 드라마 등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전문 드라마를 선보인다.

방송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그리고 밤 7시부터 자정까지이다. 채널은 36번.

여 성

동아텔레비전(DTV)

여성만을 위한 전문 채널

오직 여성 만을 위한 전문 채널로서 주부와 직장여성, 젊은 여성

에게 접근하는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여성의 기본적인 관심사인 여성의 아름다움, 사회 참여 등에 대한 내용을 선보일 계획.

오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방송한다. 채널은 34번.

GTV

여성의 잠재성, 성취 동기 유발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은 생활 및 시사 정보를 주요 프로그램으로 설정하고 여성들의 삶과 실용성에 중점을 두어 방송한다. 또 여성의 잠재성이나 성취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세대간 갈등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방송되며 채널은 25번.

비디오자키 프로그램, 국내외 콘서트 프로그램, 순위 프로그램 등을 편성하여 방송한다.

이 가운데 비디오자키 프로그램은 뮤직 비디오 쇼를 중심으로 추억의 가요, 팝송, 올 댓 재즈 등 각 분야의 음악을 소개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후 3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방송하며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방송한다. 채널은 19번.

뮤직네트워크(MNET)

10대 취향의 현란한 쇼 지향

10대 취향의 현란한 쇼를 지양하고 고전음악, 창, 국악, 오페라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방송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이다. 채널은 27번.

음 악

고려음악방송(KMTV)

뮤직 비디오 쇼를 중심으로 소개

▼케이블 TV는 뉴스, 영화, 음악, 교육, 스포츠, 오락 등 다양한 채널로 세분화되어 있다.

종 교

평화방송TV(PBC TV)

천주교 교양 육성



천주교 교양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설교 등 직접 선교 프로그램 외에 생명이나 교육 등을 주제로 하는 간접 선교 프로그램도 방송한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방송한다. 채널은 33번.

불교TV(BTN)

교리 전파 등 포교에 중점

불교 기본 교리의 전파와 불교적 교양을 선양하는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프로그램의 편성은 포교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법회, 교리 강좌, 국내의 사찰의 역사 등을 방송한다.

방송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채널은 32번.

공공 채널

한국영상(KTV)

정부의 주요 정책 홍보

국가가 공공 목적으로 운영하는 채널로서 국립영상제작소에서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정부의 주요 정책, 법령 개정안, 행정 안내 등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방송 시간은 미정이다. 채널은 14번.

전문가 의견 2

수신자 권리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약관 미리 읽어보아 불이익 방지

■ 글/임해선(바른 언론을 지키는 모임 회장)

기대와 우려 속에서 출발하는 케이블 TV가 얼마 만큼 우리에게 유익한 매체로 활용될 수 있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상당 부분 수신자 스스로가 매체의 소비자로서의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는 가에 달려 있다. 소비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결과는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수신자가 이 새로운 매체에 관심을 갖고 유익한 매체로 지켜나갈 수 없다면 매체가 미치는 사회 문화적 악영향은 견줄 수 없이 확산되고 말 것이다.

이제 몇 개월 후면 개막될 케이블 TV방송 시대에 수신자가 알아두어야 할 몇가지 점들을 살펴보자.

수신희망자는 수신 신청 계약 후 전송 케이블을 가정에 연결하고 컨버터라는 별도의 수신장치를 기존의 텔레비전

수상기에 설치한 다음 시청할 수 있게 되는데 계약전에 수신 약관의 내용을 미리 살펴봄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종합유선방송 표준이용약관에 따르면, 수신자가 수신 시설을 임의로 증설하여 다른 사람이 수신하도록 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수신자가 가장 궁금히 여길 요금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신청자는 가입시에 시설 설치비, 컨버터 보증금을 지불하고 수신료 및 컨버터 사용료를 매월 납부해야 된다. 만일 요금미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체납액의 2/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한편, 수신자가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공공성과 윤리성에 관한 사항이나 심의 규정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항

(예컨대, 명예 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등)에 관해 시정을 요구하고자 할 때는 사안 발생 후 20일 내로 처리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 이외에 수신료를 비롯한 수신 약관이나 수신 설비 또는 관련 사업자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안 발생 후 30일 이내로 처리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사안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내 수신자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와 같은 약관을 잘 모를 때는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소비자가 스스로 주체적인 자세를 갖고 노력을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불만시 어떻게 대처하나

불만시 대처 요령

방송 내용, 수신료 등에 대한 민원 종합유선방송위원회에서 처리

수신자와 종합유선방송국은 일종의 계약 관계이다. 이 계약에 따라 수신자는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으며 방송에 대한 불만을 건의할 수도 있다.

방송 내용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거나 방송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또는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조언을 원할 경우의 대처 요령을 알아본다.

수신자와 직접 청구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은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이다. 이곳에서는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신자 불만을 접수받는다. 즉 방송 내용에 대한 불만을 포함해 방송 기술적인 문제와 수신료 등에 대한 민원을 처리한다.

불만 사항은 반드시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해야 하며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특히 설비와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는 사고처리

만이 보수, 처리해주게 돼있다.

한편 케이블 TV에 가입할 때는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청약과 해지 관리, 요금 관리, 설비의 유지, 관리, 보수 등 가입자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기재돼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예컨대 케이블 TV 가입을 취소하고 싶을 때는 7일 이내에 철회 신청을 하면된다. 또한 가입자가 케이블 TV 시설의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서면으로 방송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시설을 이전할 때는 그에 따른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방송국 사정에 의하여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총 15일 이상 수신하지 못한 때는 해당 월의 수신료는 면제된다. 이밖에 요금과 관련해 이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방송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잘못된 요금은 접수 날짜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를 받아 즉시 환불받을 수 있다.

만약 가입자의 불만 사항이 개선

되지 않을 때는 종합유선방송위원회(774-2380)로 연락하면 된다.

케이블 TV 상식 2

컨버터란?

다양한 채널의 케이블 TV를 시청하기 위해 가입자는 가정에서 주파수를 선택해주는 컨버터, 즉 주파수 변환기를 이용해야 한다. 컨버터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은 케이블 TV의 다채널을 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텔레비전은 2~13번까지만 채널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케이블 TV에 있어 컨버터는 필수적인 장치이다. 단순한 채널 선택의 기능뿐만 아니라 원하는 시간에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예약 기능도 가지고 있다. 또 리모콘으로 조작할 수 있는 리모콘 기능도 있으며 성인용 채널 보호 기능도 가능하다. 가령 가정에서 성인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 아이들이 보아서는 안되는 프로그램을 암호나 열쇠 등을 이용하여 시청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